

# 2019 추수감사주일

##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 1. 감사

히브리어 '토다(감사)'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의미한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8)' 말씀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감사'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 2. 주인이 오신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의 예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마태복음 25:14절 이후에 보면, 주인이 먼 타국을 갈 때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주고 떠난다. 잘 아는 비유이다. 다섯, 둘, 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와 함께 소개된 이유는 분명하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이다.

감사의 맥락에서 이 본문은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선물로 준다. 우리의 답답함은 언제 주인이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큰 위로는 그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정말로 오셔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낸 종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마태복음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다. 주인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 주인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인은 나를 인정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인은 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 주인은 나의 고민, 아픔 하나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 주인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 주인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 나의 작은 일 하나를 집중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인이 오신다. 그 주인이 오시면 해결되고, 기쁨도 충만해진다. 그 주인이 오시면 보상해주시고 알아주신다. 그 주인이 오시면 불확실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신다. 그 주인이 오시면 상급을 주시고, 권위와 나의 지경도 넓히시고 확장하신다. 주인이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이 오신다.”*

### 3. 감사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온전하신 주인을 만날 종의 태도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주인은 다시 오셔서 상급을 받을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충성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이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신실함을 뜻한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되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맥락의 뜻이다. 충성은 주인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상태를 말한다.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 '주인은 좋은 분이시고,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꼭 오신다.' 라는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머리, 계획, 능력,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된 삶, 충성의 마음이 필요하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감사의 조건을 반드시 주신다. 충성된 삶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역의 업적도 아니다. 충성으로 옷 입은 사람을 만나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의 삶을 연습해야 한다.

충성된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 충성된 사람이 진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사의 삶 만큼 축복된 인생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충성됨으로, 감사의 순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반드시 감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감사하자. 주인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자. 주인이 오시면 된다. 주인이 오시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감사의 순간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 충만한 감사가 우리 조이풀 안에 실재가 되게 하자.